

진리와 위로의 성령님

성경말씀: 요14:16-18

진리: 235회, 요한복음에만 27회, 요한일서-삼서 20, 총 47회

빌라도의 질문 요18:37-38

진리가 무엇이나? 철학자, 사상가, 종교의 창시자, 다 상대적인 진리를 말한다.

절대적인 진리는 무엇인가? 기독교의 진리, 하나님 자체가 진리이다(요14:6).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할지어다(롬3:4).

요한복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요1:14).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대해 증언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마지막 만찬, 예수님은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시면서 언약의 말씀을 주신다: 내가 다시 온다.

그런데 내가 가면 위로자 성령님이 온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다. 위로의 영이다.

세상은 그분을 알지 못한다. 그분이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 동안 너희의 위로가 된다.

성령님의 이름(16,17)

다른 위로자, 진리의 영

다른 위로자: 우리를 불러서 자기 옆에 두시는 분, 변호자, 강하게 하는 분

위로자의 뜻은 단순히 부드럽게 위로하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나약함을 뜻하지 않는다.

강하게 한다는 뜻이다. 즉 세상을 이길 힘을 갖게 만든다는 뜻이다.

성령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일하지 않는다.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

성령님은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우리와 함께 걸으며 강하게 해 주는 분

내주를 통한 위로(17절)

구약 시대에도 성령님이 계셨다.

신약 시대에 오순절 성령 침례 이후에는 성도들 안에 영원히 내주하신다(고전6:19-20).

가르침을 통한 위로(26절), 기억나게 하심으로

죄를 깨닫게 함으로 위로를 주신다(16:8)

죄 가운데서는 위로를 받을 수 없다. 죄를 고백해야 위로를 받는다. ★★★

고통이 있다. 그러면 고통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

듣기 좋은 말, 설교자는 소용이 없다. 고통스러워도 그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

그래야 성령님의 위로가 있다.

다른 위로자, 아버지 하나님이 위로자였다. 예수님이 위로자였다. '다른': 같은 종류의 '다른'을 즉 아버지도 하나님이요, 아드님도 하나님이요. 성령님도 하나님이다.

진리의 영:

예수님 자신이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다.

그러므로 그분은 예수님과 말씀을 증언한다(요16:13-14).

성령님은 말씀에 영감을 주시는 분이다. 성경 기록의 저자이다.

그러므로 성경을 깨닫게 해 주는 분이다.

진리의 영이므로 그분은 거짓과 오류와는 상관이 없고 그것들을 미워하신다.

오류의 예: 구약 교회, 카톨릭(니콜라당), 은사주의, 랜드마키즘, 현대 역본

진리는 불변이다. 그래서 위로가 된다. 건강, 재산, 명예 등과 상관이 없다.

건강해도 진리로 인해 위로, 병상에서도 진리로 인해 위로를 받는다.

성령님과 세상의 관계(17)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분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그분은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세상은 보는 것을 추구한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다. 그러나 세상은 진리를 알지 못한다.

세상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 아들을 알지 못하면 성령님을 알 수 없다.

세상의 특징: 요일2:15-17

진리 대신 욕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세상 속에서 진리를 붙들고 살고 있다.

그래서 미움을 받는다. 불편한 진실을 이야기하기 때문이다.

웃이나 신발이 안 맞으면 아주 불편하다. 세상이 우리와 안 맞으므로 대단히 불편하다.

우리는 어떤가? ★★★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위로자를 주셔서 고아와 같이 위로 없이 살지 않게 하셨다.

요16:7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의 위로를 받아 승리하고 다른 이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성령님이 없이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 수 없다.

무엇이 진리인가?

진리는 매우 단순하다. 예수님의 4복음서

1.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시다(창1:1).

2. 사람과 오 우주 만물은 창조되었다: 스티브 호킹, 물리학자, 우주가 하나님 없이 창조되었다.

3. 무언가 잘못된 것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 썩고 죽고 상하고 물어뜯고 공의와 정의가 없고 우주 공간의 환경들이 파괴되고 전체 창조물이 신음하고 있다.

죄로 인해 이 세상은 멸망으로 치닫고 있다.

4. 사람은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5. 하나님만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예수님의 성육신

6. 예수님 이후에 진리의 성령님이 오셨다. 이분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알 수 없다.

7. 객관적인 증거로 성경 기록을 주셨다.

8.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이 부활한다: 사람은 하나님의 본성을 취하고 있다(형상). 그 특성은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다. 개나 돼지와 다르다: 생명의 부활과 정죄의 부활

9. 천국과 지옥이 있고 보상의 심판이 있다. 원래의 지옥은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마련해 놓은 곳이다. 갈보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공평하지 않다.

10.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신다: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

11. 정의와 공의와 평강이 넘치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영원이 다가온다.

근본적인 5가지 진리

1.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요1:1; 20:28; 히1:8-9)

2. 예수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사7:14; 마1:23; 눅1:27)

3.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속죄(행20:28; 롬3:25, 5:9; 엡1:7; 히9:12-14)

4. 몸의 부활(눅24:36-46; 고전15:1-4, 15:14-15)

5. 절대무오한 성경(시12:6-7; 롬15:4; 딤후3:16-17; 벧후1:20)

성령님에 대한 태도

1. 예수님을 대하듯이 대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전이다. 술 담배 음행 등의 지저분한 죄
진리와 위로의 성령님은 결코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의 교회가 성령님이 충만한 교회이다.

2. 성경의 저자가 성령님이다. 그분을 대하는 태도가 바로 성령님을 대하는 태도이다.

귀한 책이다. 생명이 흐르는 책이다.

결론

당신은 진리를 아는가? ★★★

예레미야 대언자: 진리를 말하는 자가 없어서 국가가 망한다.

위로의 성령님이 내주하시는가? ★★★

성경을 공부할 때, 병들어 아플 때, 성경을 가르칠 때, 전도할 때, 봉사할 때
학교 공부할 때, 가정생활에서, 사회생활에서